

## 밥퍼 건물 철거반대 범국민지지 서명에 동참해주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민족 복음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평화와 은혜가 넘치시길 간구합니다.

범국민의 사랑과 한국교회의 나눔과 섬김의 실천으로 36년을 이어 온 청량리 밥퍼나눔운동본부 직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의 구두행정 안내와 지시를 따라 배식공간의 부족과 푸드뱅크의 필요성을 해결하기 위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은 “밥을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뜨거운 여름과 추운 겨울에 밖에서 오래 기다리는 것은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것과 너무나 상반된 것이니 어서 증축해서 한 분이라도 더 편안하게 밥을 드시도록 해야 한다”면서 증축하라는 행정 안내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증축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은 부지에 있던 동대문 해병전우회를 설득하여 컨테이너 네 개를 놓고 사용하던 자리를 확보하여 증축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7월 동대문구 구청장이 현 이필형 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참으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밥퍼의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2억8천여만 원을 부과 받은 상태입니다. 이 건물은 21년 전 이명박 서울시장 시절 처음 지었고, 두 번째 건물은 12년 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지어서 저희에게 운영을 맡긴 건물입니다.

현재 **《밥퍼 건물 철거반대, 밥퍼 건물 양성화지지》** 범국민 참여 서명운동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밥퍼는 다일공동체의 정체성이요, 첫 번째 열매이며 한국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상징이기에 한마음과 한뜻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사명실현지입니다.

밥퍼를 지키는 일은 다일공동체와 다일복지재단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며, 한국기독교의 나눔과 섬김의 상징을 지키는 일입니다.

현재 다일공동체 밥퍼나눔운동본부(다일복지재단)와 동대문구청은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미 밥퍼 인근에 형성된 청량리 뉴타운에 입주할 주민 2천명이 밥퍼의 철거와 철거가 아니면 밥퍼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는 서명을 민원으로 제기한 상태입니다.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 나눔과 섬김을 통해 화해와 일치를 이루어가는 밥퍼나눔운동에 대해 청량리 뉴타운에 입주하는 사람들이 밥퍼에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밥퍼를 없애거나 옮기려고 제기한 민원은 가진 자들의 극단적인 물질주의와 이기주의로

사회적 약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밥퍼의 어려움에 무관심하지 않고 함께 지켜가길 소망하며 모든 교회의 지지서명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8월 24일에 3차 공판이 열리게 되는데 3차 공판이 열리기 전에 밥퍼 건물 철거반대와 양성화 지지서명이 일차목표로 국민청원에 해당하는 20만 명을 넘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일어나길 소망하며 2차에는 52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에게 밥을 나누어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지켜가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밥퍼를 지키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내드리는 서명용지에 마음을 담아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회적 약자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서명으로 밥퍼는 위기를 기회로 바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